

‘다른듯 같은’ 5人5色…‘미완의 전설’ 회화로 풀다

국윤미술관 특별전 ‘염원:미완의 전설’...내달 30일까지

화순 운주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세계유산 등재 염원 담아내
작가 5명 참여, 하나된 공동의 서사로 예술적 상상력을 더하다

화순 운주사의 문화적 가치를 오늘의 시각으로 조명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윤미술관은 오는 11월30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특별전 ‘염원:미완의 전설’을 연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의 정식 등재를 향한 지역사회의 바람을 예술로 풀어내는 자리다. 운주사는 천불천탑과 와불 전설로 잘 알려진 문화유산이다. 2017년 잠정목록 등재 이후 2024년 화순문화원 국내학술대회,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 관리’ 국제학술대회 등 학술 논의와 조사·보존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은 이러한 흐름에 공감해 운주사를 주제로 작업하는 다섯 명의 작가를 초청, 각기 다른 해석을 한 자리에 모았다. 참여 작가는 국중효, 김은희, 김혁정, 최순임, 황순철 등 5명이다. 국중효는 물감을 여러 차례 덧칠하며 나이프로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해 두터운 마티에르를 만들어 석불의 투박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상의 정서를 통해 독창적 울림을 전한다. 김은희는 운주사 석불의 합장 수인에서 출발한 ‘소망화’를 선보인다. 두 손을 모은 형상을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몸짓으로 읽어내며, 직선·사선·곡선을 단순화해 단색 화면 위에 조형적으로 풀어낸다. 김혁정은 ‘모여선 미르기들’, ‘염원’, ‘미르기의 얼굴’을 통해 ‘땅의 기운이 하늘과 맞닿은 곳’으로서의 운주사를 응시한다. 세월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석불 앞 합장의 태도에서 자신의 삶과 불자의 방향을 확인한다. 최순임은 ‘미완의 전설’, ‘염원’, ‘미완의 꿈’에서 고단한 일상 속 가래온 내면의 정원과 운주사의 전설을 융합한다. 특히 석불·석탑을 모티프로 삼은 ‘미완의 꿈’에서는 먹과 아크릴로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는 세계를 펼친다. 황순철은 현지에서 채취하며 천불천탑을 주제로 작업한다. 나이프 기법을 대담하게 구사해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석불의 거칠고도 따뜻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미완의 전설과 석불 속 아름다움·공동체적 서사를 관람객에게 전한다. 김은희 국윤미술관 학예실장은 “서로 다른 시선과 방법으로 해석된 작품들이 한 전시 안에서 공동의 서사를 이루며, 문화유산의 재현을 넘어 예술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며 “우리 문화유산의 의미를 예술과 연결해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황순철작 ‘戰士佛(Soldier Buddha)’



국중효작 ‘해탈’



김혁정작 ‘염원’

바이올린 영재 김예은 ‘감동의 선율’

제8회 클래식 영재발굴 프로젝트 우수연주자 초청 독주회

제8회 클래식 영재발굴 프로젝트 우수연주자 초청 독주회가 지난 28일 오후 남구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무대는 (사)순율이 주최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이올린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김예은 (살레시오초 2·사진) 양이 초청 연주자로 나서 약 50분 간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 김양은 헨델의 바이올린 소나타 4번 라장조 전악장과 비발디 사계 중 겨울 전악장,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1악장과 5악장, 몬테의 차르다시 등을 연주했다. 바로크부터 낭만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작품을 폭넓게 다루며, 탄탄한 기본기와 섬세한 표현력을 고루 갖춘 무대를 완성했다. 특히 빠른 템포의 곡에서도 흔들림 없는 연주력을 선보여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김양은 만 6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해 기본기와 기교를 다져왔으며, 빠른 템포의 곡에서도 안정된 연주력을 보여주는 영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차이코프스키와 시벨리우스의 곡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해갈 계획이다. 김예은양은 “부족하지만 제 연주가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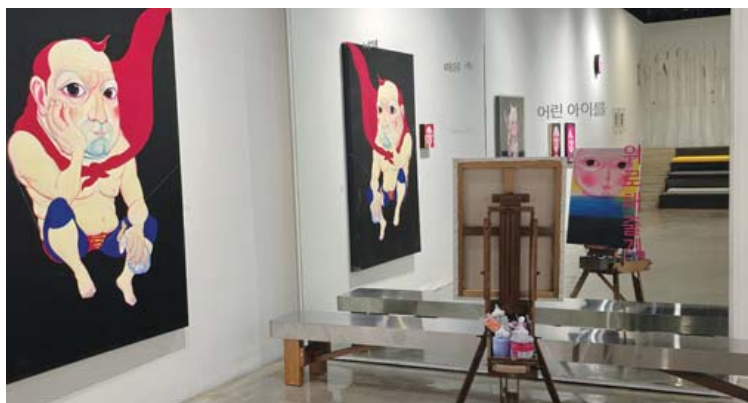
바이올린 영재 김예은

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를 맞은 ‘클래식 영재발굴 프로젝트’는 광주 지역의 유망 클래식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 트레이닝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후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전문 트레이닝을 받고 발표 무대에 서며, 우수연주자에게는 독주 기회와 전문 단원의 개인 레슨 특전이 주어진다. /최명진 기자

작품 어땠지?...고정관념 깨야 보인다

전시 공간 속으로 옮겨온 예술가의 시간...전현숙 초대전, 내달 2일까지 대담미술관

아기자기한 소품, 추억이 스민 작업 도구들, 작가의 철학과 일상이 담겨있는 작업실이 미술관으로 구현된다면 어떨까. 실제 작업 공간을 전시장 내에 펼쳐낸 특별한 기획전이 마련됐다. 대담미술관은 오는 11월2일까지 전현숙 작가 초대전 ‘그 여자의 작업실’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는 작가의 대표작인 ‘그 여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명명됐다. 단순한 재현을 넘어 작가의 내면세계와 삶의 맥락, 창작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 전시에선 일반 관람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창작의 현장을 오롯이 선보인다. 드로잉과 에스키스, 작업노트, 채색 도구, 물감이 묻은 팔레트 등 창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오브제를 통해 작품의 시작과 완성 과정을 작가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관람객은 이러한 관람을 통해 작가의 내면, 감정, 삶의 조각이 예술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또 전시 공간 내에는 직접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나도 아티스트’ 체험 코너가 마련돼 있다. 작가가 실제로 작업 중인 작품을 포함해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관람객은 마치 작가가 된 듯한 몰입감 속에서 창작의 순간을 느껴본다. /최명진 기자



전현숙 초대전 ‘그 여자의 작업실’ 전시 전경

전시를 기획한 최아영 대담미술관 부관장은 “이번 전시는 완성된 결과물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작업 과정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며 “예술가의 작업실에 온 듯한 경험을 통해 감각적이고 사유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